

The Keyword X.

'원리(principle)' -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 원리

* 사전적 정의 - 법칙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을 뜻한다. 흔히 법칙, 원칙과 거의 비슷한 뜻으로 쓰이나 원래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진리는 무엇일까? 진리는 아는 것이다. 여기서의 앎이란 지식적 앎이 아니다. 적용 가능한 앎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좀 더 명확히 설명한다.

[요한복음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단순한 지식적 앎이 아니다. 진리의 효력이 있다. 진리는 자유를 선물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추상적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이다. 누가 자유를 알 수 있는가? 묶인 자들이다. 갇힌 자들이다. 억압된 자들이다.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진짜이다. 자유를 안다는 것은 본질을 알았다는 것이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일을 알 수 없어 답답했는데, 이제 원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바로 원리이다.

2. 현상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아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현상 뒤의 원인을 안다. 그래서 그들이 설명하면 이해가 된다. 이해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 그곳에서 흩어졌던 퍼즐이 맞추어진다. 퍼즐이 맞추어지면 확신이 생긴다.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안개와 같은 상황이 명확해 지는 순간이다.

예수님은 오셔서 눈에 보여지는 모든 현상에 대한 원인을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할 때, 사역을 해도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반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또한 원인을 말씀하셨다. 백부장을 보라. 혈루병 여인을 보라. 그들 안에 있는 ‘큰 믿음’이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다.

3. 변화

예수 믿고 실재적으로 내 삶이 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의 축복이 왜 있는지? 지금의 어려움이 왜 있는지? 명확히 알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추상적인 일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즉, 모든 의문과 현상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은 ‘이야기’로 되어있다. ‘인물’을 통해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말씀을 읽는 우리의 시점이다. 즉, ‘전지적 작가시점’인 것이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다윗의 삶을 보라. 우리가 바라보는 두 인물을 향한 시점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시점에서 본다는 것이다. 그들의 인생 안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이삭을 드린 사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알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왜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셨는지 알 수 있다 (사울의 불순종). 왜 삼손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여인의 미혹에 넘어감).

그리고 성경은 왜 인간의 삶에 고통이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준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며, 이를 통한 죄의 유입이 인간의 삶 가운데 고통을 가져왔다. 얼마나 분명한가? 내가 수양해서, 내공을 연마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읽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설명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이야기이다. 내 인생이 그 이야기 안에 점철되어 있다. 말씀이 나의 삶에 동기화 되는 순간이 바로 그 때이다.

4. 간음한 여인

간음하여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이다.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은 돌을 맞아 죽는 심판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인이 죽는 이유는 분명하다. 간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음하여 율법을 어긴 여인을 용서하시고, 성난 군중으로부터 보호하신다. 여인의 삶에 은혜가 내린 것이다. 죽어 마땅한 인생이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입은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율법의 조건에 맞지 않는 나의 삶은 여인처럼 심판받는 것이 응당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적인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다. 놀라운 사건이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모든 죄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8:10-11]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전적인 은혜를 입은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 엄청난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다.

“여인아 네 삶이 왜 죽기 직전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 왜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달려들었는지 아니?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네가 간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고통의 원인을 알겠지?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단다”

5. 땅의 원리를 아는 농부

이제 원리를 알아야 한다. 여인이 간음의 실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로 인한 실재적 고통의 원인을 가르쳐주신 것이다. 여인이 죄를 심었기 때문에 심판을 수확한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오늘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 복의 일이 일어났으면 복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복을 수확하는 것이다. 내 삶에 수확이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어야 수확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믿음의 정확한 의미이다. 씨를 심는 것은 바람과 같다. 막연한 바람이 아니다. 수고하여 심어야 한다. 그러면 열매를 본다.

[시편 126:5-6]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6.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났다.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어도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제 잠시 멈추어서 열매를 얻는 영적원리를 붙잡으라. 내 인생, 가족, 공동체, 나라를 위한 미래를 내 현실에 옮기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수확하게 된다. 10년 후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보여지는 일에 흔들리지 말라. 실수했다면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믿음의 원리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라. 그 복의 약속은 현실이 된다.